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공론화 ‘드라이브’

전남도, 무안서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설명회 도 주관 최초 개최...지역 반대 여론 변화 주목

전남도가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남지역 군공항 이전 관련 설명회·토론회가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과 달리, 전남도가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면서 무안지역 내 군공항 이전 반대 여론이 변화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도는 8일 무안군 남악신도시 소재 전남개발공사 대강당에서 무안과 남악 인근 주민 등 도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목포대학교에서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 전남사회단체연합회에서 주최한 강연회 등 지역사회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긴 했지만 전남도가 주관한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명회에선 최용선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이 ‘광주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최용선 전 행정관은 강연을 통해 “군공항 이전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지금이 특히 중요하다”며 “2020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에 이어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개항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속히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전 행정관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에 비춰보면 앞으로 전남과 광주 간 정치적 합의와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군공항 이전’이라는 접근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거점 공항’을 무안에 개항한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광주시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최 전 행정관은 “공항 이전은 특정 기초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동력이자 서남권 거점 공항을 육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훨씬 주도적인 전남도의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무안공항 항공특화사업 단지(MRO)가 조성되고 향후 저가항공

사(LCC) 등 민간항공기 뿐만 아니라, 군공항 이전에 따른 군 항공정비 물량까지 민간으로 이전되면 항공산업이 집적돼 무안공항 일대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전 행정관은 또 “군공항 이전 시남악신도시나 목포 원도심 일대에 소음 피해가 발생한다는 일부 우려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며 “한국소음진동학회 대구공항 소음영향지역 설정 연구(2016년)를 분석한 결과, 공항 주변 일부 지역에만 소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선 참석자들이 전남도와 무안군이 대규모 주민설명

회를 공동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도민 통합과 서남권 발전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정확한 정보 제공 노력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5월 나주역, 함평, 무안, 목포, 순천 등에서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오는 16일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군공항 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재정 기자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일본 정부가 울어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8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일원에서 투기 반대 서명운동이 실시됐다. 이날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방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

평년보다 많은 비...장마 내달 초 시작

광주지방기상청 ‘1개월 기상 전망’ 발표

올해 여름 장마가 7월 초 시작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이 8일 발표한 ‘1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7월3일부터 광주·전남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

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가 시작되겠다. 7월9일까지 강수량은 평년(36.5~87.2mm) 수준으로 예보됐다.

비는 7월9일 이후에도 계속 내릴 것

으로 보인다. 7월10~16일 강수량은 평년(32.5~122.4mm)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광주지방기상청은 6월 강수량은 평년(118.7~213.9mm)과 비슷할 것이라 전망을 내렸다. 7월 강수량은 평년(206.5~279.1mm)보다 많고, 8월 강수량은 평년(192.2~322mm)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6~8월 기온은 평년(▲6월 21.2~21.8도

▲7월 24.4~25.6도 ▲8월 25.5~26.5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7월 광주·전남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다”며 “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덥고 습하겠으며,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에 의해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학동 참사,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고 현장서 2주기 추모식...추모공간 조성 논의 지속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2주기 추모식이 9일 오후 4시20분 열린다.

8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사 현장(옛 삼성디지탈프라자 주차장 일원)에서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건설현장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모식을 거행한다.

추모식에는 이진희 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와 유가족, 강기정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 시·구의원, 시민대책위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개회 선언을 시 작으로 추모 묵념, 내빈 소개, 감사패 전달, 헌화, 추모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추모 묵념은 특별히 참사 발생 시간인 오후 4시 22분에 맞춰 2분 가량이 이뤄진다.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께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5층 규모 철거건물이 무너지면서 바로 앞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철거 공사를 맡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의 현장소장, 불법 철거를 강행한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현장 확인을 안한 감리자 등 붕괴 직접 책

임자로 지목된 9명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시는 학동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6월9일을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추모일로 지정하고 추모 공간 조성과 건물 잔해에 깔린 윤리5년 버스를 영구 보존하기로 했다.

현산과 유가족들은 지난달 초 추모공간 조성 방향을 공유했다. 구체적인 조성 장소와 추모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유족과 현산이 추모공간에 대한 논의 방향만 공유했을 뿐 현재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없는 상태”라며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광주시와 함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Today

- 김경수의 광주평 ‘최초’ 이야기 5면
- 원전 오염수...‘세슘물고기’ 속출 8면
- ‘폭풍질주’ 광주FC 4연승 도전 16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광주매일신문
창사 65주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 2023년 신년사 중 -